

서울 주보

제2599호
2026년 2월 8일(가해)

연중 제5주일



입당송 | 시편 95(94),6-7 참조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제1독서 | 이사 58,7-10

화답송 | 시편 112(111),4-5,6-7,8,9(◎ 4가)

-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
- 그 마음 굳세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

제2독서 | 1코린 2,1-5

복음환호송 | 요한 8,1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 마태 5,13-16

영성체송 | 시편 107(106),8-9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 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착한 행실로 하느님 찬양



신정훈 미카엘 신부 | 해외선교

어느 나이가 지긋하신 본당 신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본당이 대단했어요. 성탄 밤 미사에 삼천 명이 참석해서 성당 앞마당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본당의 날 행사에는 천오백 명의 교우가 근처 비어가든을 꽉 채웠었고요. 제 혼배 미사에 복사를 선 친구들만 팔십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오십 년이 흐른 지금, 복사들이 모여서 피자를 같이 먹는데, 본당 신부님과 저, 어린이 복사 네 명과 청년 복사 둘, 그리고 두 명의 부모님이 전부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도 빈자리가 많은 성당의 모습이 그렇게 생소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복음 말씀의 자리입니다. 소금이 ‘맹하면’ 혹은 ‘싱거워지면’이라는 표현은,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수십 년이 흐르며 박해와 미움, 사회적 따돌림을 받고 풀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빗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저명한 신학자 신부님의 영결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사제서품 70주년을 맞으신 뒤 두 달 후, 96세의 일기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을 번역한 것을 계기로 저는 그분을 알게 되었고, 2016년에는 그분의 프로젝트에 초대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누군가가 픽업을 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바로 그 노인 신부님께서 제 이름이 쓰인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고, 조금 늦게 도착한 다른 신부까지 기다렸다가 회의가 열릴 장소

까지 밤늦게 당신의 차를 손수 몰고 가셨습니다. 회의 기간, 매일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복사가 없으니 신자석에 앉아 있던 어떤 분이 쑥 나와 주례 신부님을 도왔는데 역시 그 신부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평신도 신학자들, 여성 신학자들, 외국인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성직자 부족으로 신학의 전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의 제자들은 평신도 신학 교수로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이끈 프로젝트는 전 세계 신학자들을 연결하여 신학을 유럽 중심에서 전 세계 차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모임이 불가능해지자, 90세가 넘는 그분은 컴퓨터를 배워 온라인 회의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 묘비에 남긴 말은 “serviam. (봉사하겠습니다.)”라는 단 한마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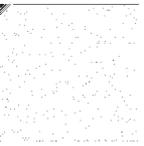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마태오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거나 구석으로 밀려나 수동적으로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신원 의식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품으며 봉사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9) 그것이 하느님 찬양의 길입니다.

그림 해설

빛과 소금 | 타서 없어지고, 녹아서 사라진 자리에 빛은 온기로 남고, 소금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 작아져야 했던 에고(ego)와 맛을 내기 위해 감내했던 비난을 풀어 간직하면, 모래시계처럼 지금도 쉼 없이 움직이는 거룩한 사랑이 보입니다. 이 분열의 땅에서 저 평화의 영토로 안내한 선조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저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연습을 합니다.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어머니의 기도



주현미 소화데레사 | 가수

저희 부모님은 일 때문에 늘 바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탓인지 저는 제 아이들과 되도록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엄마가 곁에 있어 줘야 한다는 생각에 가수 활동도 잠시 접었죠. 그 시간은 가수로서 공백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엄마로서는 아주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일상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웅얼이하는 거며, 첫걸음을 떼는 거며, 처음으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 등등 아이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한 살 한 살 자랄수록 기쁨도 커졌지만, 한쪽에는 걱정도 커졌습니다. 혹여 아이들이 다치지나 않을까, 아프지나 않을까, 나쁜 길로 빠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전과 모험을 주저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10대 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할 만큼 말이죠. 제 눈에는 아직 아이인데 엄마 품을 떠나, 그것도 낯선 땅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필 머나먼 땅으로 가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같이 따라가서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몇 번을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냥 엄마 곁에 있으라고, 그냥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들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던가요? 결국 아이들은 제 품을 떠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떠나고 나자, 저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미국에는 총기 사고도 많다는데, 마약 하는 애들도 많다는데, 인종 차별도 심하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 미국에 관한 온갖 나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걱정된다고 당장 찾아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순간순간 매일 매일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주님의 자녀이니 부디 지켜주시라고 말이죠.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고 멋지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도는 시들해지는데 여든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지칠 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들은 적은 없지만 알 수는 있습니다. 분명, 모든 기도가 저와 저의 형제들, 그리고 손주들을 위한 것일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니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할 지를요. 지금의 저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준 건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컷 묵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3,14)

허욱 토마스모어 | 작가

다윗의 자손



이우식 베드로 | 성서신학자

복음서의 첫 문장은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르코복음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마르 1,1)이라는 첫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기쁜 소식(복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면, 마태오복음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마태 1,1)라는 첫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태오가 이 첫 문장으로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당대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지도자라는 뜻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군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마태 21,9,15) 하고 열광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호산나’는 구원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과월절 축제를 거행하면서 그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던 역사가 다시 벌어지기를 갈망했던 셈이죠.

또한, 다윗은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데 성공한 임금이었습니다. 이에 기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는 그의 혈

통에서 나올 거라는 열망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메시아(그리스도)가 되려면 먼저 다윗의 자손에 해당하는 혈통이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에,(마태 1,20 참조)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어 마태오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족보를 다윗과 바빌론 유배를 중간에 넣어 14대씩으로 나열합니다.(마태 1,17 참조) 최고의 전성기인 다윗과 최악의 침체기인 바빌론 유배 시절을 거쳐 왔으니만큼, 이제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되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눈먼 사람 둘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태 9,27:20,30) 가나안 부인도 딸이 마귀에 들렸다면서 같은 방식으로 자비를 청합니다.(마태 15,22 참조) 당대에 하느님께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고 여겼으므로, 치유 행위는 곧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이름을 지어줄 때 이미 시사되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1)

사랑의 질서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요즘 생긴 고민이 있습니다. 방학 중이라 약간의 시간이 남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해야 할 일을 위해 에너지 비축도, 연구도 중요해. 나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 우선이지. 나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2025년 초, 미국의 부통령 JD 밴스는 미국이 이주민을 돌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하며, 이어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조국의 국민들을 사랑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나머지 세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우구스티노의 ‘사랑의 질서’(ordo amoris)를 인용한 것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자렛 출신의 이민자로서 피신한 경험이 있음을 언급하며, 이민자의 고통을 예수님의 삶과 연결시켜 밴스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의 ‘사랑의 질서’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이에게 먼저 책임을 느끼지만, 이는 결코 먼 사람을 배제하라는 논리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밴스는 이를 국가주의적 자기 우선 논리로 단순화함으로써 모두를 사랑하되, 관계적 책임에 따르는 질서가 있다는 본래의 맥락을 배제하고 배타주의 논

리로 축소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교황님은, “사랑은 동심원의 확장처럼 자기만족적 질서로 한정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경계를 넘어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실행될 경우, 극심한 빈곤, 박해, 기후 변화 등으로 자국을 떠난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되며, 특히 불법 이민자의 지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조치에는 옳게 형성된 양심이 반대해야 한다. 무력에 기반한 정책은 끝이 좋지 않은 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비판은 무작정 단순한 이민자 수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 접근과 엄정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을 환대, 보호, 통합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이웃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는 타인은 내 이웃이 아닌 것처럼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족, 내 공동체만 우선이고 그것만으로 내 사랑은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루카 6,32)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타인에 대한 사랑을 순위 매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순차적으로,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랑의 질서는 어떠한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저도 서둘러 봉사를 하러 떠나야 하겠습니다.



노래로 하면 두 배의 찬양! WYD 합창단과 합주단 발대 미사

2026년 1월 17일(토)

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에서 'WYD 합창단 및 합주단의 발대 미사'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단원들은 성가에 대한 애정으로 지역과 나이, 국적의 경계를 넘어 오디션을 통해 전국에서 선발되었습니다. 단원들은 "정성을 다해 연습하고, 동료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하나 된 마음으로 연주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선서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발대 미사에서는 국악을 포함한 합

창단과 음악 분과의 전문 위원들은 물론, 미성년 단원의 보호자들도 처음 상견례를 하며 초심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단을 선언하고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의 내용을 인용하여 성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단원들을 격려 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위해 투신하기로 결심한 단원들에게 2027 서울

WYD는 스스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도구가 되고 하느님께 크나큰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고 전달하는 소임을 맡은 단원들 스스로 자신이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습니다.

WYD의 빛이 전국으로 뻗어갑니다!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전국 교구 순례 파견 예식

2026년 1월 18일(주일)



지난 1월 18일,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의 전국 교구 순례 파견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예식은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경배, 보편 지향 기도, 묵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경배 중에는 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역대 WYD 주보 성인 성인 호칭 기도'가 성가로 봉헌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호칭 기도가 아니라 WYD의 여정을 함께해 온 주보 성인들을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로 준비되었으며, 이번 순례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청년 신앙을 잇는 자리임을 드러냈습니다.

보편 지향 기도를 통해 참가자들은

2027 서울 WYD를 준비하는 사제와 수도자, 봉사자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WYD를 향해 걸어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원주교구로 이어질 다음 순례를 맡은 젊은이들과,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이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자연환경과 생명의 존중을 위한 지향 역시 함께 봉헌되었습니다. 예식 말미에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묵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예식을 통해 서울에서의 여정을 마친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는 1월 21일 원주교구를 시작으로, 2027년 5월 30일까지 전국 교구를 순례할 예정입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묵주기도 봉헌 운동
719일째
(2024-02-11부터)

실시간 봉헌 현황
327,793,026단
(달성률 32.78%)

자세한 내용은



초대교회사람들 | '한국 교회와 우리 문화 돌아보기'를 올해의 주제로 삼은 서울주보의 새로운 코너 '초대교회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순교자나 성인뿐만 아니라, 초대 한국 교회와 함께했던 다양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조명하는 코너입니다. K톨릭의 토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느껴보세요!

상습적 배교자 김복성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다산 정약용은 1795년 주문모 신부 실포 사건의 여파로 금정 찰방으로 쫓겨납니다. 정조는 다산에게 천주교 소굴로 알려진 이곳에 가서, 그곳 천주교도들을 검거하고 이들을 배교케 함으로써 천주교에 관한 누명에서 벗어날 것을 명합니다. 7월 29일에 금정에 도착한 다산은 18일 뒤인 8월 17일에 그곳의 천주교 지도자 김복성을 체포해서 배교하겠다는 다짐장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속전속결의 기세였습니다.

김복성이란 이름이 낯익어 검색해 보니, 그보다 네 해 전인 1791년 12월 11일에 충청도 관찰사 박종악이 정조에게 올린 홍주 지역 천주교도 검거 보고서 속에 그의 이름이 나오더군요. 이때도 “관청에서 적발하였다가 다짐을 받고 풀어 주었습니다.”라는 보고 내용이 보입니다.

내친 김에 《사학징의》를 검색하자 아니나 다를까 1801년 1월 25일 충청 감영에서 올린 비밀 공문에 “보령 역졸 김복성은 상놈 중 사학의 괴수이다. 중간에 달아나 상경하였는데, 작년 겨울에 금정역에서 추쇄하여 붙잡아 돌아오다가 다시 놓쳤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뭐 이쯤 되면 그에게 배교는 아무 의미 없이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고 풀려나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91년, 1795년에 두 번이나 다짐장을 쓰고 석방되었지만 1801년에 그는 여전히 이곳 사학의 괴수(?)로 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상경하여 서대문 밖 야동(冶洞)으로 달아났습니다. 검거 기록이 없으니 그는 요행히 서울에서 도피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사학징의》에는 김복성에게 사학을 배워 유배형에 처해진 사람으로 최끝재,

이취번, 김만기 등이 나옵니다.

김복성의 배교는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다분히 전략적인 것이었다는 느낌입니다. 배교를 거부하다 죽음을 당해 어렵게 쌓아올린 교회 조직이 순식간에 와해되느니, 차라리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되 내 마음 속의 신앙만 굳건하다면 그들의 알량한 자비를 거꾸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같은 전략적 배교는 유독 충청도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지역 교회 지도자였던 내포의 사도 이존창의 연속적 배교와도 무관치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죽음을 택하느니 잠깐의 거짓 배교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들의 이같은 판단을 무작정 비난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테니까요. 부임한 지 보름 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산 앞에 제 발로 자수한 김복성과 다산 사이에는 모종의 담합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심증이 갑니다. 다산은 천주교도 검거의 공을 세우고, 김복성은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뒤돌아서서 신앙을 이어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을 테니까요. ‘나는 천주를 믿는다. 하지만 말로는 얼마든지 배교해 주마. 입의 배교가 마음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할 테니까.’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갔던 그 마을에서 최양업 신부님이 태어났고, 이 일대는 초대교회의 못자리가 되었습니다. 배교와 순교는 흑백의 이분법만으로는 셈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셈입니다. 더 찾아보니 김복성은 홍주 다락골 성지가 자리한 월내동에 살고 있었고, 홍낙민의 산지기 노릇도 했던 인물입니다.

2026년 서울대교구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

교구장이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주례로 '해외 선교 사제 파견 미사'를 거행합니다. 이준 바오로 사제, 김호찬 프란치스코 사제, 이한별 도미니코 사제가 해외 선교 사제로 파견되는 은총의 자리에 '선교하는 시노드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함께하시어 많은 기도와 응원으로 힘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2월 해외선교후원회 월례 미사는 파견 미사로 대체됩니다.)

때, 곳: 2월 20일(금) 14시, 명동대성당
 집전: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
 문의: 02)727-2407, 2409 해외선교봉사국

교구 전례위원회 개편 및 위원 임명

위원장: 구요비 주교 / 부위원장: 김연범 신부(사목국장)
 위원: 정성환 신부(교구 사무처장), 김진철 신부(성소국장), 정현진 신부(대신학교), 안원진 신부(교구장 비서), 전호엽 신부(중계양업본당 주임), 이세호 신부(사목국 교육지원팀), 홍웅기 신부(청소년국 청년부), 유영주 신부(로마한인신학원 부원장), 이철규 신부(명동본당 부주임)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4년 2월 12일 김선영 요셉 신부(76세)
- 1997년 2월 15일 이삼복 요한 신부(83세)
- 2016년 2월 11일 강대호 스테파노 신부(55세)

교구청 알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2월 9일(월) 오전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명동)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가톨릭 정보시스템 혁신을 위한 컨설팅 제안요청

내용: 굿뉴스 30주년과 세계청년대회 및 AI 시대를 준비하는 가톨릭 정보시스템 컨설팅
 2월 27일(금)까지 접수 / 문의: 02)2269-0419(내선 1번)
 신청방법: 굿뉴스(<https://www.catholic.or.kr>) 공지사항 참고

갤러리1898 안내

1) 휴관 안내
 보수 공사 및 설 연휴로 인한 휴관: 2월 3일~18일
 2) 2026 갤러리1898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안내
 공모 주제: 성미술 관련 / 접수기간: 2월 22일~3월 1일
 굿뉴스 및 인스타그램(@gallery1898) 참조

2026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1년 강역) / 강역: 조창수 신부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역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2026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피정: 2월 20일~3월 2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제142차 사회교리학교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가톨릭사회교리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입니다 / 문의(신청): 02)727-2431 정의평화위원회(2월 27일까지)
 때: 3월 9일~5월 11일 매주(월) 19시~21시(8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회비: 8만원(우리 454-009601-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atholicjp.or.kr) 참조

환경사목위원회

1) 제50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창조질서 보전에 관심 있는 모든 이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 하늘땅물빛 소개 / 문의(신청): 02)948-6282 하계동성당 /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때: 2월 26일~3월 26일 매주(목) 20시~21시30분(총 5회)
 곳: 하계동성당 / 마감: 2월 15일(주일)까지
 2) 제83차 피조를 보호를 위한 미사
 때, 곳: 2월 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장기봉사자 모집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위한 장기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wydseoul.org)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문의: 02)2230-2023(volunteer@wydseoul.org) 2027 서울 WYD 조직위

구역반장학교

대상: 구역장·반장
 때, 곳: 3월 4일~25일 매주(수) 10시~13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4주간) / 회비: 5만원(2월 25일 접수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6년 전반기 강좌 안내

접수기간: 2월 2일(월)~3월 2일(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문의: 02)727-2379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 9일~6월 15일 매주(월) 10시30분~12시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역)
 개강미사: 3월 9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 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2권), 직장인(3권) 성서못자리
 때: 3월 11일~6월 17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역)
 개강미사: 3월 11일 19시30분, 명동소성당
 회비(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민중화해위원회

1) 2026 화해·평화학교 수강생 모집
 때, 곳: 3월 4일~4월 1일 매주(수) 19시,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203호(총5강) / 문의: 02)753-0815, 010-4682-2412(문자)
 회비: 일반 7만원, 수도자·청년 5만원(평화기행 별도)

1강	3월 4일	[평화신학] 한반도 평화를 향한 영성 / 정수용 신부
2강	3월 11일	[북한사회] 미술의 변화로 보는 북한 사회 / 박계리 교수
선택	3월 18일	[평화기행] 갈에서 만나는 한반도 평화 / 정수용 신부
3강	3월 18일	[국제정세] 세계질서의 대어행기 / 백준기 교수
4강	3월 25일	[북한경제] 북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 김성경 교수
5강	4월 1일	[평화실천] 분단을 넘어서는 실천적 사유로서의 평화 / 문이영 대표
수폐	4월 8일	수료 미사

2) 150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995년 3월 7일(화)부터 시작해 매주 화요일 봉헌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가 1500차를 맞이합니다 / 이날 감사와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자 하오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때, 곳: 2월 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주례: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함흥교구 영흥 본당
 2월 17일(화)은 설연휴로 인해 화해 미사가 없습니다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과(가족, 교우, 이웃)를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명동 가톨릭회관 CPE센터: 02)727-2434
 서울성모병원 CPE센터: 02)3147-9428
 수원 성빈센트병원 CPE센터: 031)249-7950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문의: 02)727-2126

1)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김혜선),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집단상담(최현정),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마음근력 키우기(윤제연), 해금(정겨운), 뮤지컬(이슬), 이탈리아어(류재만), 붓질-생명을 깨우다(김현정)

2) 가톨릭상담아카데미

내용: 가톨릭상담(박현민 신부), 영성과 철학상담(박병준 신부), 가톨릭영성심리(최지원 수녀), 가톨릭 윤리(손호민 신부), 마음의 힘 키우기(홍성남 신부), 영적돌봄(장경민 신부), 가톨릭교의(박준양 신부) 외.
 때: (화) 오후 2시~4시(총 20주) / 회비: 한학기 10만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2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곳: 2월 21일 매일 세번째(토) 10시(자비의 기도) ·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318-3079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프로그램: 사별대상별 자조모임(부모, 자녀, 형제자매), 청년모임, 예술테라피, 독서모임 등
 프로그램 시간: 홈페이지(3079.or.kr) 참조

신청기한: 2월 21일(토)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총진행일정: 3월~11월까지(매월 1회 총 8회기 모임예정)
 문의(전화 접수): 02)318-3079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불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2월 2일(월)~26일(목)까지 / 3개월 수업(3월~5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http://www.casm.co.kr>)

불학기
 실기전문 과정
 양상분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그레고리오성가·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2203-3053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김영춘 신부(1지구 지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성령미사·강의·안수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도미니코 수도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 010-9363-7784
 때, 곳: 2월 13일~16일·2월 20일~23일·3월 20일~23일·4월 17일~20일·5월 15일~18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순교성지 새남터 사순 일일 피정
 때: 3월 7일(토) 10시~15시(순교기념일 미사 포함)
 곳: 새남터성당 2층 대성전 / 강사: 황인수 신부(성바오로수도회),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회비: 1만원(중식 제공) / 3월 5일(목)까지 접수
 문의(접수): 070-8672-0327 성지안내소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섬, 순례(성지·자연), 말 씀초대 /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특화된 프로그램)
 때: 4월 28일~30일·5월 23일~25일·10월 22일~24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사순 40일 기도회
 때, 곳: 2월 18일~4월 4일 매일 18시~22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천주교 성령봉사회관 하차
 미사(21시), 고해성사, 십자가의길, 찬미, 율동, 기도회 / 문의: 02)867-7900, 010-5259-8234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2월 10일 차선미 회장(인천) 2월 17일 설 연휴로 쉽니다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완독 3월 6일(금)~14일(토), 4월 17일(금)~25일(토)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문의: 010-9715-1203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침묵 피정	2월 27일~3월 1일, 3월 27일~29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3월 21일(토)~22일(주일)
청년 주말 침묵 피정	3월 28일(토)~29일(주일)
품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상시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전례 탐방 /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4월 11일~15일	울릉도, 독도, 왜관수도원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명동)
4월 24일~26일	춘천 15곳·성내동성당	
5월 1일~4일	부산 8곳, 마산 6곳	
5월 18일~20일	대구 17곳	

예수고난회 서울 명성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3월 6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2월 20일(금)~22일(주일)
사순 피정	3월 19일(목) 10시~16시
치유침묵기도 피정	3월 20일(금)~22일(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 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살레시오 청년 렉시오 디비나 기도 모임
 성경 묵상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의 동반
 때, 곳: 3월 17일~12월 15일 매주(화) 19시30분~21시30분, 살레시오회 관구관 4층 성당
 담당: 박선우 신부 / 문의: 02)831-3068

서울대교구 청년 성령 피정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이사 40,31)
 때, 곳: 2월 28일(토) 10시~3월 1일(주일) 18시(무박),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 / 회비: 6만원(숙박비 8만원) 카톡플러스친구: 루하/ 인스타그램: @ruah.fiat
 문의: 010-7445-6929 청년성령쇄신봉사회

2월 토요 치유 피정 천송이 천번 기도회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미사·안수·중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성령 봉사회
 1) 2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2월 14일(토) 12시~17시30분 / 강사: 송병섭 신부
 2) 천송이 천번 기도회: 2월 23일(월) 12시30분~17시
 3) 2월 17일 철야기도회 휴무입니다

제주 산들 평화 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분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제주 순례 2월 27일~3월 1일·3월 27일~29일·5월 9일~11일·5월 15일~17일, 추자도 성지순례 3월 5일~8일·3월 12일~14일·3월 18일~21일·5월 29일~6월 1일 / 문의: 064)732-4702 면형희 집

산티아고 도보순례·CaFF영화제작워크숍 수강생 모집
 1) 가톨릭영화인협회와 함께하는 산티아고 도보순례
 때: 4월 10일(금)~22일(수) / 문의: 02)778-8565
 2) CaFF영화제작워크숍 13기 수강생 모집
 때: 3월 4일~6월 20일 매주(수) 18시30분~21시(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academy)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쉽고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때: 겨울 한라산 눈꽃산행과 자연순례 2월 20일~22일·2월 26일~28일, 3월 사순시기 성지·자연순례
 ① 추자도 순례 3월 1일~4일·3월 12일~14일·3월 29일~31일, ② 차귀도 섬 순례 3월 7일~9일·3월 16일~18일·3월 26일~28일, 엠마오 떠나는 4월 자연순례 4월 6일~8일·4월 7일~9일·4월 11일~14일(추자도) /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고상·성모상·묵주 만들기(가톨릭목공예)
 CWC(가톨릭목공예) 네이버 검색 / 문의: 010-5234-5044

어른 초등·중학, 영어학생 모집
 학력인정 초등·중학, 여행영어, ABC 기초, 회화반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방법: 우편 또는 이러닝(동영상) 중 선택
 2월 28일까지 접수(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3, 010-5584-8945

국악성가 성주간 배움터
 내용: 국악미사곡과 성주간 동안 사 용할 국악성가들 / 문의: 02)558-2004
 때, 곳: 3월 7일(토) 10시~17시, 국악성가연구소(주최) / 강사: 강수근 신부 직강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 문의: 02)2258-8480 교육원

그리스도의 레지오회 ECYD 청소년 모집
 그리스도와 우정을 깊이하는 영성 프로그램
 때: 2월~5월(토) 15시~20시30분(월2회) / 대상: 초6~중1 사제 2명 동행·지도 / 문의: 010-5365-4415

거룩한 예수님 수의와 함께하는 마르코복음
 때: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 회비 없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죽동) / 문의(접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서울대교구 가톨릭다도회 불학기 회원 모집
 때: 금요일 오전반 3월 6일부터 10시30분~12시30분(13주간) / 문의: 010-3707-5712, 010-6618-1313
 곳: 인사동 교육장 / 생활 다레와 예절 교육

직장인을 위한 축복받은 성경읽기 모임(가톨릭서모임)
 그룹형 성경통독 / 홈페이지: www.biblemove.com 사무엘(상), 사무엘(하), 서간(갈라~테살)
 때, 곳: (월·화·수·주일) 20시, 비대면 / 02)824-4363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나이 들, 새로운 소명
 지난 삶을 성찰, 의미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대상: 60세 이상 / 문의: 010-7451-9707(회비: 100만원)
 때, 곳: 3월 16일~25일·4월 20일~29일·5월 18일~27일·6월 15일~24일(10일), 강원도 홍천(서울 출발)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청년(만40세 미만) / 2월 19일까지 접수
 때: 2월 24일부터 매주(화) 10시30분·19시30분
 곳: 한국CLC 강의실 / 문의: 02)2135-9398 한국CLC

예수회 금요기도학교
 체계적 기도강의, 기초부터 따라하는 기도실습 정기적 침묵 피정 / 회비: 학기당 15만원
 때: 3월~6월 매주(금) 오전 10시~13시(주회, 학기제)
 곳: 예수회센터(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 대입준비, 멘토링지원·진로탐색, 자격증 취득(사전·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영 어회화·토론·글쓰기·작곡 등) / 댄스지도봉사자,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수시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2026년 1학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산티아고 스쿨(주말·주중)-순례에 대한 영적 이해와 준비(6만원), 연례회 활동실무-연도 의미(예식)에 맞는 가창법과 상징예식의 진행 방법(20만원), 전례꽃꽂이-성전 꽃꽂이를 위한 플라워 디자인 이론과 실기(30~40만원), 국제ITEC아로마테라피-국제인증아로마자격증과정 이론과 실기(300만원)
 곳: 가톨릭대 평생교육원(부천 역곡) / 02)2164-6587 홈페이지(https://lifelong.catholic.ac.kr) 접수

명동대성당 성서사시주간 수강생 모집

강사: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 / 회비: 8만원
 때: 3월 10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40주간)
 문의: 010-5114-7196 (문자) 명동대성당 가톨릭성서모임

영성 강좌-평화로 가는 101가지 방법

때, 곳: 3월 10일~6월 30일 격주(화) 15시~16시30분
 (8주간, 명동 / 강사: 이동기(강원대학교 평화학과 교수)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www.jjscen.or.kr)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영성, 교리, 신학 강좌와 수련 8강 / 비대면 온라인
 담당: 권효섭 신부(이나시오영성연구소) / 02)3276-7799

격주 화요일	14시~16시 / 개강: 3월 3일
격주 목요일	19시30분~21시30분 / 개강: 3월 5일

상장례지도사(봉사자·국가자격취득) 교육생 모집

곳: 의정부고구정 내 신앙교육원·대회의실 카페(http://cafe.daum.net/c-sjr) 공지사항 참조
 문의: 031)874-6272 상장례학교

봉사자반	3월 14일~6월 13일 매주(토) 9시~18시(10주)	50명
자격증반	3월 14일~12월 5일 매주(토) 9시~18시(30시간)	30명

청년기도학교 및 OFF 피정(전교가르멜수녀회)

기도 학교	대면반 2월 24일(화), Zoom반 2월 26일(목) 19시30분~22시(총10강) / 문의: 010-7523-0956
청년OFF 피정	매월 세번째(토) 2월 21일 14시

2026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2월 10일(화)까지 / 02)747-8501(ci.catholic.or.kr)

교리교육학과	10시50분~15시40분(주5일)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2년 과정)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주4일)	

예수회센터 봄학기 강좌

3월 개강 / 현장 및 비대면(구글미트)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현장 강의	예수회센터 월요 피정(무료)	구정모신부
	비블리오 드라마	김영근신부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의 대화	서명원신부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신부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 강의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김영근신부

모집

카리타스 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월1회 바오로선교회 장애인 미사 봉사
 연습: 매주(월) 19시, 약수역 근처 / 010-2686-0185

시스피나 시니어 합창 단원 모집(홍성)

그레고리오 성가와 전례성가 연주 및 봉사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010-9842-8818

서울대교구 오라시오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남녀 55세 이상 서울거주자
 때, 곳: 매주(금) 14시, 가톨릭성음악아카데미
 문의: 010-3249-9596(https://cafe.daum.net/ca-chorus)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1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
 봉사분야: 병원 안내 / 모집: 3월 6일(금)까지
 문의(접수): 02)2258-5781, 2

2026년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때: 2월 28일(토) 14시 / 대상: 1981년 이후 출생자
 홈페이지(https://www.catholic-choir.or.kr) 참조
 문의: 010-2075-4035 (문자)

수아비스합창단 단원 모집 / 문의: 010-7151-9831

활동: 제11회 정기연주회, 성지미사 봉헌, 연주 봉사(각 복지기관) / 연습: (월) 19시30분~21시30분, 공간음악(전철 7호선 장승배기역)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2월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2월 19일(목) 낮 12시, 문화관 2층 소성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 미사

때: 둘째주(토) 2월 14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10-7142-0513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2월 11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등), 가족 및 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www.karf.co.kr)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o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전문 심리 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국가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해당 기관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컷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SPACE갤러리 전시 작가 모집(청년)

모집기간: 2월 9일(월)~3월 9일(월)
 곳: 청년문화공간JU(주최) 1층 CAFE 내 갤러리
 전시시간 및 접수 방법 청년문화공간JU(www.yju.or.kr) 사업계시판 참조 / 문의: 02)338-7832

유관단체 알림

떼제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대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월 세번째(토) 2월 21일·3월 21일·4월 18일 15시45분~18시(주일 미사), 햇살사목센터(주최, 해화로2길20) 성당 / 문의: 02)744-0840

직원모집

평화상조 홍보인력 모집 / 문의: 1588-1774

대상: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신자
 자격: 홍보활동 경험자(본당 및 기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 3월 20일까지 우편(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 15층, 팩스(02-3474-9594), 방문

요셉의원(서울역 소재) 직원 모집

선우경식 선생의 정신을 잇는 요셉의원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2)3668-8432
 병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후 지원서 접수 / 분야: 간호사, 재무회계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분야: 연구직원(육아휴직 대체자) 1명
 원서 접수: 2월 19일~3월 7일 / 자세한 내용은 부서 홈페이지(www.kyos.or.kr/ca)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02)553-7320, 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서울대교구 역사관 운영 매니저 모집(순교자현양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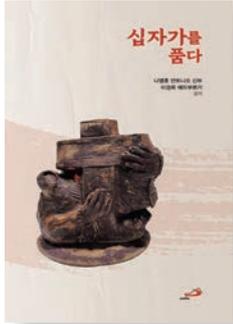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분, 도슨트 경력자 및 영어 가능자 우대 / 업무: 역사관 현장 운영 및 학예업무 보조, 관련 행사 지원 등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교적 사본
 2월 13일(금)까지 이메일(martyrs@seoul.catholic.kr) 접수
 이메일 문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이메일 문의
 분야: 사업 기획 및 진행(국고보조사업 등), 교육·행사 담당 교구사무원 1명(예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각 1부
 2월 22일(주일)까지 이메일(aoin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모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5075-3513 권성환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지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관향리 분원	010-5195-3217 성소부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9695-1366 로메라 수녀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3월 8일(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십자가를 품다

나영훈·이경희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40쪽 | 6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이경희 작가의 테라코타 작품과 나영훈 신부의 묵상 글이 함께 담긴 십자가의 길 기도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넘어 '가슴에 끌어안는 것'으로 묵상하는 여정이 행복했다고 말한다. 한 처 한 처 기도하며 걷다 보면 예수님의 수난, 고통, 사랑과 은총을 깊이 느낄 수 있다.



신간
모든 이를 위한 십자가의 길 (개정판)

C. 엔즐러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48쪽 | 6천원
문의: 02)945-2947, 010-2572-1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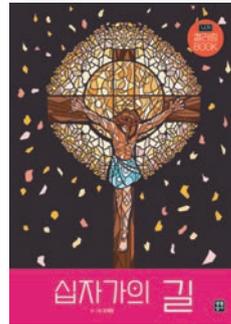
1987년 처음 출간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이 책은, 십자가의 길을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초대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해 준다. 특히 그리스도의 음성과 사람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어, 십자가의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간
은총의 순간

V. 안토니오 사지 VC 지음
바오로딸 | 184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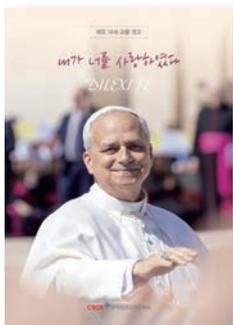
안토니오 신부의 세 번째 피정 강론집인 《은총의 순간》은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순간이 은총의 통로임을 전한다. 저자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이끈다. 쉬운 예화와 18개의 성경 묵상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되는 책이다.



신간
컬러링 BOOK 십자가의 길

조재형 지음
생활성서사 | 40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십자가의 길 컬러링 BOOK》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바치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컬러링과 묵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더욱 직접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함께 수록한 묵상 글은 사순 시기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교황 권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레오 14세 교황 지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112쪽 | 8천원
문의: 02)460-7582, 3

이 책은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교황 권고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돌봄을 다룬다.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이어 레오 14세 교황님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부르심의 연관성을 깨닫기를 바라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내일이 아닌 오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연극
불란서 금고 - 북벽에 오를 자 누구더냐

일시: 3월 7일(토)~5월 31일(주일) 수 16시, 목 19시30분, 금 16시, 19시30분, 토 주일 공휴일 14시, 17시(월화 공연 없음)
입장권: VIP석 7만7천원, R석 6만1천원, S석 5만5천원
장소: NOL 서경스퀘어스콘 1관 / 문의: 02)6925-0419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4명 30% 할인

연극 <불란서 금고 - 북벽에 오를 자 누구더냐>가 10년 만에 관객을 찾는다. 장진식 코미디 특유의 리듬과 말맛에 스타일의 긴장감을 더해, 블랙코미디의 정수를 무대 위에 풀어냈다. 지하 밀실에서 벌어지는 한밤의 작전, 각자의 욕망과 오해가 얽힌 이야기 속에서 웃음과 여운이 교차한다. 신구, 성지루, 장현성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밀도 높은 앙상블을 완성했다.

● 2026년도 안젤루스 주일학교 등록안내

- 개학 미사 : 3월 7일(토) 18시 미사
 - 등록 대상 : 명동 교적이 있거나 명동대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 3학년~고 2학년 학생
 - 등록 기간 : 2/1(일)~2/29(일) ◆ 등록비 : 10만원
 - 등록 방법 : QR코드 접속, 신청서는 메일  mdsd.angelus@gmail.com로 접수
- ※등록인원 제한 있음. 문의사항은 상기 메일로 문의 요망

● 안젤루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젤루스 주일학교는 첫영성체 이상 초,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위해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 20세~30세 천주교 신자
- 활 동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미사 전 교리 등

※문의 : mdsd.angelus@gmail.com

● 아미쿠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아미쿠스 주일학교는 미사를 참례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일학교입니다.

- 대 상 : 세례성사를 받은 만 20세~40세 천주교 신자
- 마감기한 : 2/22(일)까지
- 활 동 : 주일 오전 10시 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미사 후 교리 등

※문의 : mdsd.amicus@gmail.com ※메일로 연락 요망

● 명동대성당 미사해설단 단원 모집

- 대상 : 견진성사를 받은 만 20~45세 남녀 신자
- 활동 : 평일 오후 6시, 오후 7시, 주일 미사 해설 및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회합이 가능한 분

문의 및 신청 : 이메일 mdsdcommentator@naver.com
전화 010-2579-6939

● 가톨릭성서모임 수강생·그룹원 모집

- ① '성서사십주간'
- 때 : 3/10(화)부터 매주 화 오전 10시
- 곳 : 교구청본관 501호
- 수 강 료 : 80,000원 ※QR신청 
- ② '성경그룹공부'
- 때 : 3월 첫 주부터 매주 화 오전, 수 저녁, 주일반
- 곳 : 범우관 교리실
- 모집그룹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QR신청 
- 문 의 : ☎ 010-5114-7196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3545+ 청년성가대 '카이로스' 단원 모집

- 대 상 : 1983년생~1993년생 남녀 천주교 신자
- 활 동 : 토요일 오후 7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 연 습 : 토요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 지원방법 : 2/18(수)까지 입단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 성당소식->단체모집 게시판 참조 ※상세 일정은 개별공지 예정
- 문 의 : md.kairos.official@gmail.com

◆◆ 기부 천사 ◆◆

명동 종합계획 2단계 기금
(1월 12일 ~ 2월 1일 : 682,888,814원)
누계 : 7,784,712,277

2025년 하반기 본당 수익금 : 672,295,414원
심 현 철 : 10,000,000원 | 익 명 : 93,400원
길 유 분 : 500,000원

기부 천사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 명동대성당 평일미사독서단 단원 모집

-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되고 견진성사를 받은 천주교 신자로서 평일미사(오후6시, 7시) 독서 전례 봉사가 가능한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교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 월례 회합에 참석 가능한 자)
- 서류 : 입단지원서(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와 교적증명서 이메일 제출
- 마감 : 2/28(토)까지
- 문의 : mdsdpmd@gmail.com

※오디션 및 인터뷰 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명동 청년·3545+ 청년성서모임 봄학기 그룹원 모집

- 신청기간 : 2/7, 2/14 (18:30~20:10)
2/8, 2/15 (16:50~20:10)
- 신청방법 : '성당마당 부스' 접수
- 개설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모집대상 : 현재 20~45세 천주교 세례받은 청년
- 상세내용 : 네이버카페(/ourbible 또는 /ourbible3545)
- 기타문의 : 온라인 카페 내 '2026년 봄학기문의'게시판 이용
- 비고 : 개강미사 및 그룹원 OT·봄학기 청년3545+미사 필수 참석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단원 모집

- 대 상 : 남녀 천주교 신자(1981년 이후 출생자)
- 오디션 : 2/28(토) 14:00 / 명동성당 문화관 3층
- 오디션 곡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중에서 1곡 (※자유곡은 악보 2부 준비)
- 접 수 : 2/26(목)까지 입단지원서(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와 교적증명서 이메일(catholicchoir@naver.com) 제출
- 문 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동가톨릭합창단 검색

QR코드 스캔→  (가톨릭합창단 홈페이지)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주님과 음악 사이에」 연주회

- 일시/장소 : 매월 첫째 주일 오후 3시 30분 / 명동대성당 대성전
- ※무료 공연으로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단원 모집
- 대상 : 세례자 또는 예비세례자(1년 이내 세례예정) 초 2~5학년 남아
- 문의 및 지원 : https://naver.me/FoIjdKXc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풍(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예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전례·성음악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신부
주일학교·양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세베토 이사악(이사악)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421	봉헌 : 237, 213, 511	성체 : 496, 160, 152	파견 : 4
-------	----------	--------------------	--------------------	--------

《 환영합니다 》

금번 인사이동으로 김 베로니카 원장 수녀님, 전례 담당 구 올리안나 수녀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따뜻한 환영과 함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김수환 추기경 선종 17주기 추모 미사 》

- 일시 : 2월 8일(일) 낮 12시 교중미사
- 주례 : 구요비 읍 총대리 주교

《 축 세례 》

2/8(일) 13시 30분에 세례 예식 미사가 있습니다. 본 미사는 새 영세자와 대부모 가족들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 **연령회 월례회의** : 2/8(일) 오전 11시 소성당
- **새 영세자 첫 고 해**
· 일시/장소 : 2/10(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2월 17일(화) 「설」 합동 위령 미사**

날 짜	시 간	미사 예물 접수
2/17 (화)	07시, 10시 18시, 19시	· 설 합동 위령 미사 예물접수 : 본당 사무실 (2/15 주일까지) · 당일 해당 미사 전, 제대 앞 봉헌함에 직접 봉헌 가능

- **설 연휴 기간 상설 고해소 및 본당 사무실 휴무**
2/16(월)~2/18(수)은 상설 고해소와 본당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2/19(목)부터 상설고해소 재개 및 본당사무실 정상 근무합니다.
- **2월 18일(수) 「재의 수요일」**
· 당일 모든 미사중에 <재를 엮는 예식>이 있겠습니다.
※성지수거는 2/15(주일)까지 본당사무실

《 단식재 · 금육재 관면 》

2월 17일(화)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다음날(18일, 재의 수요일)은 교회 전례 규정상 단식재와 금육재를 동시에 지켜야 하지만 올해는 설날을 맞아 귀향과 손님맞이 등이 이루어지는 명절 연휴기간이므로 교구장님께서 단식재와 금육재를 관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

우리는 사실상 앞으로 이 하느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물질주의,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하느님 없이 사느냐 하는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잡지 인터뷰, 1999/11)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내어주면서도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행복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 2025년도 '명동발전기금' 교구 송금액 공시

지난 한 해 명동성당 종합계획 2단계 기금(☞기부천사 기부금 포함)으로 총 1,510,914,835원이 모였습니다. 이 봉헌금은 교구로 송금되어 '명동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2025년도 본당 미사예물 금액 공시

지난 한 해 교우 여러분께서 봉헌해주신 생미사·연미사·합동위령미사 예물 (642,059,730원)을 교구로 송금하였습니다. 본 미사예물은 교구와 본당 외 소임하는 사제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2026년 1분기 새 신자를 위한 후속교육

- 시간/장소 : 오후 7시 30분~9시 / 교구청본관 401호
- 교육대상 : 최근 1년 이내에 세례 받은 신자
- 신청방법 : 1주차 교육일에 강의 장소에서 현장 접수 (※1주차 이후도 접수 가능)

교육일정		교육주제
1주차	2/24(화)	성사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 (성사)
2주차	3/ 3(화)	하느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전례)
3주차	3/10(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과 기도)

※본 교육 수료 후 7주간의 성경 통독 프로그램(☞자율 선택)으로 이어지오니 새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1/26-2/1).....36,559,000
- 연중 제 4 주일 헌금.....35,092,955
- 제대초 봉헌금(1/4-2/2).....10,399,000
- 감사헌금 (1/26-2/1).....2,220,000
- 강 아우구스티노 / 김 마르가리타마리아알라록 / 김 발렌티노
김 아녜스 / 김 엘리사벳 / 박 아델라 / 박 마카엘라 / 백 안젤로
이 라베라도 / 이 카타리나 / 이 클라라 / 임 사무엘 / 전 마리스텔라
전 요셉 / 정 토마스아퀴나스 / 최 아이베르토 / 최 힐데가르트
하 아씨시프란치스코 / 황 테레사 / 익명(1)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07:00, 09:00(English Mass),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1:00, 12:00(교중미사), 16:00, 17:00, 18:00, 19:00(청년미사), 21:00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주일미사 (토요일)		고해성사 (Confession)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평일미사	월	07:00, 18:00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화-금	07:00, 18:00, 19: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성지미사	토	07:00	Sun.	08:30 - 08:50			
	월-토	10:00	Sat.	16:00 - 17:0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